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6년도 표어 ◎
교회, 백성의 위로자(사40:1)

◎ 행동지침 ◎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이 중 윤 †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

(시편 33:1-22)

시편은 이스라엘의 찬송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는 모두 사람이 지은 것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헤드리기에는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편의 대부분은 다윗 개인이나 혹은 이스라엘의 국가적 경험을 배경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33편은 그 양상이 달라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초청을 받고 우주적인 축복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라고 합니다.

시편 32편 11절 말씀 “너희 의인들이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이 다 즐거이 의칠지어다”는 시편 33편 1절에서 의인들이, 즐거워하라, 찬송하라는 말로 반복됩니다.

1.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라

“너희 의인들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1절).

이 시대에는 감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를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희 의인들이”는 모든 신자를 의미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함은 의인된 성도의 책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조에 의하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 찬양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은 곧 예배입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나오는 것이 예배라면 모든 예배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감사예배에는 새 마음과 각종 악기와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3절).

새 노래는 새로 지은 노래가 아니고 새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신 구원 사건에 대하여 새로운 희열과 감격을 가지고 부르는 것이 새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새로워야 합니다.

“수금으로 그를 노래하며 열 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2절).

열 줄 비파로 찬양한다는 것은 열 줄 음이 한데 어울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함을 말합니다. 깊은 은혜를 찬양하려면 깊은 음이 필요하고, 높은 사랑을 찬양하려면 고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넓은 은총을 찬양하려면 진폭이 넓은 음이 좋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찬송은 마음과 입술과 시공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불려야 합니다.

듣기 싫은 노래는 즐거움을 감소시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John Wesley는 교회에서 찬송할 때는 모든 회중이 함께 찬송할 것, 힘 있게 정성껏 찬송할 것, 겸손히 찬양할 것, 박자와 고저장단을 맞추어 찬송할 것, 영으로 찬송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2.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와 말씀은 진실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4절).

장로교 신학의 중요한 용어 가운데 ‘하나님 경외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예배도 견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어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화 된 통일조국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므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다.

(5절).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인자하신 분이시며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분(6절)이시므로 우리는 그를 경외해야 합니다. 4절 초두에 히브리어 성경에는 ‘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이유는 여호와와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말씀이 정직한 것은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겸전하신 분으로 이 사실은 십자가에서 나타나셨습니다. 만약 사랑 없이 의만 있다면 그것은 무서운 강포로 나타납니다. 그런가 하면 의 없는 사랑은 매우 유약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의의 분량보다 더 풍성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공의로 말미암은 재앙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난 복을 더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종종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죄인 된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여호와와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6절).

하나님의 말씀 한 마디에 세상이 생기고, 명령 한 마디에 만물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영세토록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12절).

창조주이시며 공의와 사랑이 풍성한 여호와는 성도를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감찰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12절).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무엇도 하나님을 대신하면 안 됩니다. 의가 나라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이스라엘은 그러나 결국 불신과 불의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복음화 된 통일조국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므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3. 여호위를 신뢰하라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버림이여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20절).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므로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실 뿐 아니라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돕는 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에게는 기쁨만 가득합니다(21절).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오늘도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무엇보다 그를 경외하고 의지하므로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ISB(코리아 위성방송)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을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전교인 총동원 찬양·말씀잔치

21일(수) 홍해작전 앞당겨

6월20일 오후 6시 30분 올림픽 공원 펜싱경기장

6월20일 오후 6시 30분 올림픽 공원 펜싱경기장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찬양과 말씀의 잔치로 만나게 된다.

모든 성도들은 이날 오후 6시까지 펜싱경기장 인근에서 교구별로 모여 식사 및 다락방 모임(출석점검)을 갖고 6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찬양과 말씀의 잔치 CBS 시청자 대회에 참여하여 함께 찬양하며 이종은 목사가 전하는 은혜로운 말씀을 받아 개인적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된다.

암울한 조국의 현실과 세계선교의 사명을 위하여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도 갖게 된다.

특히 본 집회는 금주 다락방 모임과 다음날 새벽(21일 수요일)에 이어질 홍해작전을 앞당겨 진행하는 만큼 모든 성도들이 필히 참석하여 함께 찬양하고 말씀으로 은혜받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도록 당부한다.

(<http://bus.seoul.go.kr>-서울시 버스노선 안내 참조)

말씀과 찬양의 잔치(CBS 시청자 대회) 오시는 길



대중교통편 - ▶지하철: 5호선 올림픽 공원역 3번 출구 하차 도보 15분 거리
 지하철 5호선 환승역: 8호선-천호역, 7호선-군자역, 국철-왕십리역, 6호선-청구역
 4호선-동대문운동장역, 3호선-종로3구역
 2호선-왕십리역, 충정로역, 영등포구청역, 까치산역
 ▶버스: 교회인근-수서역: 3413, 4313번 삼성역: 삼성역 사거리 무역센터 앞, 3412번 - (올림픽공원역) 올림픽공원역 지나는 노선: (초록)3220, 3412, 3413, 4313번 (공항버스) 606번

요덕스토리 공연

내일 북한 구원을 위한 목회자 기도대성회에서

내일 19일(월) 오후 1시 북한 구원을 위해 목회자들이 회개와 새로운 각오의 다짐을 하는 북한 구원을 위한 목회자 기도 대성회가 우리교회에서 열린다.

본 대회는 북한 구원에 대한 한국교회의 사명을 각성하고 한국교회의 회개와 동참을 요청하며 나아가 북을화된 통일조국의 건설을 위해 열리는 것으로 이종은 목사의 설교와 주요 초청인사들의 강연이 이어진다. 주요 초청인사로는 수잔 솔티(North Korea Freedom Coalition 회장), 이삭 목사(북한선교단체 모퉁이돌 선교회 대표)용욱 장로(전 국방차관), 김성민(자유북한방송 대표)등이며 이들 강사는 북한의 실상

에 대해 자세한 증언을 하게 된다. 합심기도의 시간을 통해 한국교회의 회개와 동참을 위해, 북한 정권 종식과 자유 통일을 위해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된다.

저녁 7시부터는 탈북자 출신 감독이 자신들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요덕 스토리' 가 공연되며 이 공연은 북한의 인권과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절박한지를 보여줄 것이다. 본 공연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나라의 안위를 염려하는 성도와 이웃들의 많은 관람 바란다.

홍해작전 승전 임박

25일(주일) 승전의 날로 선포 홍해작전 4행시 공모-24일(토) 마감

6월 6일 현충일부터 연일 총만한 말씀으로 계속되고 있는 홍해작전이 마침내 막바지에 다다랐다.

교회는 홍해작전 마지막 날인 25일을 홍해작전 승전의 날로 선포하고 이날 마지막 홍해작전을 마친 후 8층 식당에서 피택 집사·권사들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떡으로 잔치를 갖는다. 또한 홍해작전 4행시 공모도 24일(토) 새벽에 마감하여 25일(주일) 저녁예배 승전보고 시 시상을 한다. 대상을 받는 성도에게는 고급 핸드폰이 부상으로 수여된다.

홍해작전 성구 스티커가 모두 붙은 출석카드 '를 제출하신 성도들에게는 머그컵을 선물로 드릴 예정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성도들이 홍해를 말씀과 기도로 갈라 승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한다.

성경 통독자 시상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 필사 1회 - (11교구) 이정희 권사
- 3독 - (6교구) 강영순 집사 김효순 집사
- 2독 - (6교구) 김계순 권사, 서영세 집사 (8교구) 김현주 권사
- 1독 - (1교구) 박상희 집사 (2교구) 최요섭 성도 (5교구) 김혜연 집사 (6교구) 서명조 집사, 윤숙희 집사 (13교구) 강민자 집사, 박순복 집사, 윤용진 성도, 주영도 집사, 한차남 집사 (14교구) 김우숙 권사

금주의 성구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고전 9:24-25)

Do you not know that in a race all the runners run, but only one gets the prize? Run in such a way as to get the prize. Everyone who competes in the games goes into strict training. They do it to get a crown that will not last; but we do it to get a crown that will last forever. (1 Corinthians 9:24-25 [NIV])

제14차 김치신학세미나를 마치며

Our Challenge for 21st Century



Our Challenge for 21st Century'를 주제로 6월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계속된 제14차 KIMCHI 신학세미나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다음은 세미나 참석자들이 수료하며 다음의 네가지 질문에 대해 진솔하게 쓴 글을 요약한 것이다.

1. 김치세미나는 한국교회 성장과 갱신을 관찰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는가?
2. 김치세미나는 한국 교회와 동아시아 교회의 관계를 가깝게 하는 기회를 제공했는가?
3. 김치세미나는 동아시아 교회 성장과 갱신의 비전을 심어주는 역할을 했는가?
4. 김치세미나는 동아시아 교회의 성장과 선교전략을 추진하는 일에 적극 도움을 제공했는가?

저는 93년부터 교회를 섬기면서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김치세미나를 통해 이런 생각이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인가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번 은혜 받은 대로 사역의 현장에서 한국교회 성도들 같이 헌신하며 최선을 다해 실천하겠습니다. 다락방 모임을 배울 때 현지의 문화가 한국과 달라 다락방 운영이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락방 모임에 참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화들

뛰어넘는 참된 교제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돌아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소그룹 교제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 * *

서울교회 김치세미나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속에서 진행되고 세계적인 선교사역의 전략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깊이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로운 세미나에 초청을 받고 10일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성령님의 직접적인 임재를 무한한 감동 속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가장 큰 비전이 되는 교회 진정 살아서 숨 쉬며 움직이고 달음박질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 소외된 자, 약한 자, 병든 자들의 섬터로 서로가 위로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교회요 진정 세계를 향해 특히 북한의 불쌍한 동족을 향해 눈물의 기도와 물질적인 헌신을 다해가는 교회임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 * *

우리 현지교회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귀국하면 이 목사님을 본보기로 삼아 모든 면에서 앞장서며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믿음, 소망이 넘치는 교회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새벽기도회를 갖고 있지만 흥해 작전처럼 분명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돌아가 우리 교회 성도들도 서울교회처럼 흥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체험을 하는 새벽기도회로 인도하겠습니다.

* * *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뜨거운 형제애와 맑은 바 직책에 최선을 다하는 불타는 사명감, 훌륭한 믿음, 순종의 삶, 헌신의 생활,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지난날 나 자신의 차지도 덩지도 않았던 신앙생활을 살펴보면 항상 뜨거운 신앙, 푸른 신앙,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또한 우리도 돌아가 지난날의 형식적인 새벽기도를 내용과 목적이 분명한 기도회로 준비하여 인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 문제의 해결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을 결심합니다.



제14차 김치신학세미나 산상기도회 다녀와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오영숙 권사(12교구)

제 14차 KIMCHI 세미나의 일정대로 6월 10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동아시아에서 오신 24분의 교역자들과 실행위원들과 함께 산상기도회를 위해 버스를 타고 양수리에 있는 수양관으로 향하였다.

때마침 단비가 내려 들녘을 내다보니 모든 식물들이 비에 젖어 윤기가 흐르며 흐뭇해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의 섭리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자랑하고 있었다. 우리 일행은 버스 안에서 시편 73편 25장으로 된 복음성가를 중국어로 또 한국어로 열심히 부르던 중 기도원에 도착하였다.

우리 모두 자리를 정돈하고 장석남 목사님의 은혜 충만한 인도로 마음껏 기쁨으로 찬송을 드렸고, 이성득 목사님의 따뜻하고 진지한 설교, "전도자들의 사명과 그 사명 잘 감당키 위해 하나님께 간곡한 기도

를 드리면 응답 받을 수 있다."는 말씀에 따라 통성으로 기도를 드렸다.

이어서 그룹별로 1)신학교를 어려운 가운데서 중단 하지 않도록, 2)청소년사역을 위해 가족과 함께 성경말씀 지도와 봉사 할 수 있도록, 3)울바른 주의 일꾼으로 깨달음 속에 늘 쓰일 수 있도록, 4)성령 충만하고 소망과 비전이 있는 체험적 신앙을 갖도록, 5)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위축되지 않고 부흥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충실이 사역만 감당하도록,

6)사역을 위해 우리 모두의 건강과 사명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7)서울교회 성도들 늘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사역에 감사하면서 계속 할 수 있도록, 등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 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렘

33:3)에서 처럼 열심히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

영적으로 갈급했던 심령이 편안하며 동아시아의 수많은 주님과 우리 교포들과 더 나아가서 북한선교까지도 열심히 하리라는 다짐을 하면서 KIMCHI 세미나의 귀중함을 또 다시 하나님께 감사한다.



김치세미나 참석자들과 함께 다락방 모임을 갖고

동아시아에 불같은 성령이...

송재현, 선순례 집사 가정 (14교구)

저희 14교구 17 다락방은 1, 3, 5 다락방과 연합으로 이번 주 모임은 김치 세미나에 참석하고 계시는 동아시아에서 오신 목회자님 세 분을 모시고 함께 다락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녁 7시, 구역 식구들은 서둘러서 모두 모였고 선교사님과 함께 동아시아에서 오신 목회자님들이 도착하셨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들이지만 어색하지도 않고, 서로 반갑다는 인사를 나누면서는 말이 통하니 믿음의 형제들이라서 금방 친숙해졌습니다. 특히 김 전도사님은 나의 손을 꼭 잡으며 여러분들이 부럽고 또 정말 고맙다며 감사의 눈빛 속으로 반짝이며 맺히는 이슬이 제 마음을 뜨겁게 적셔 주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오신 목회자님들께서는 이번에 김치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 할 때 자신들의 이



름마저도 바뀌가면서 힘들게 왔다면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믿을 생활하는 것이 정말 부럽다고 했습니다.

어렵게 선교활동을 하고 있지만 동아시아로 돌아 가면 꼭 여기처럼 다락방 예배를 드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교의 시간을 가질 때에는 촛불만 밝히고 그분들이 자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 할 때 하나님의 총만하신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 헤어져야 시간이 되어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드렸는데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고 몇 번이고 인사를 하며 나의 손을 꼭 잡은 김 전도사님이 꼬깃꼬깃 접힌 천 원 짜리 한 장을 손에 쥐어 주면서 적은 돈이지만 감사의 표시라며 "꼭 받아 달라"며 쑥스러워 하셨습니다. 끝까지 뿌리칠 수 없어 받아서 주일날 헌금을 하였습니다

다. 그런데 김 전도사님은 또 주일날에도 제가 헌금위원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 곳으로 오셔서 감사 헌금 봉투에 오천 원을 넣어서 "14교구 다락방 예배에서 받은 은혜에 감사 합니다." 라고 쓰신 헌금을 하시어 저의 가슴을 또 한 번 뜨겁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 귀한 종들을 통하여 저 넓은 동아시아 대륙에 불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퍼져나가시길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동정

■ 이종운 목사는 19일(월) 북한구원운동 목회자 대성회 개회설교, 20일(화) CBS시청자 대회 설교를 한다. 22일(목), 23일(금) 양일간 선교사 면접을 한다.

■ 이사: 박필순 성도(1교구) 국제@ 김영은 집사 장임선 성도(1교구) 청실@ T.567-2241 김인호 김훈아 성도(5-6) 안양시 동안구 신촌동 무궁화 금호@

■ 신축: 이성직 집사(7교구)spring town 상가 이태원동 59-12 T.797-7551

■ 수상: 장성자 성도(7교구) 계간 아세아 문예 시부문 신안상 수상

■ 주간식당 봉사: 루디아전도회(6월18일) 비비 전도회(6월25일)

■ 금주의 식사제공: 노문환 장로 장정화 권사 가정 (자녀 결혼 은혜 중에 마치고)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 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20분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영 어 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 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 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30분	

캄보디아 김치 동문 World Cup 열려

캄보디아 내 KIMCHI 동문 연합하는 자리

현재 캄보디아 군 복음화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이재울 선교사는 캄보디아 내에 있는 김치세미나 동문들과 협력하여 현지에서의 사역을 더욱 확대하는 의미로 캄보디아 김치 동문의 날(Cambodia KIMCHI Fellowship Day)을 정하고 참석자들이 사역하는 5개 교회가 모여 친선행사를 가졌다.

이 모임은 앞으로 매년 2회 정기적으로 모이게 되며 지난 6월17일(토)에 김치동문들이 사역하고 있는 5개 교회가 참여하여 캄보디아 육군본부 연병장에서 친목을 다지는 월드컵 축구대회를 열었다.

12월에는 찬양대회와 성경퀴즈대회 등 성도들의 신앙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캄보디아 김치동문의 날이 갖는 신앙적 의미는 참으로 깊다.

그동안 우리교회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제사장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한국교회 갱신연구원(KIMCHI) 목회자 세미나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김치 동문회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파송한 그리고 파송할 선교사들의 사역을 활성화하게 될 모범이 되었다.

우리교회 모든 선교사들의 현지 사역을 통해 많은 열매 거둘 수 있도록 기도한다.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흥해작전 승리하도록
2. 피택집사·권사 교육과정에 은혜 충만토록
3. 북한주민 구원을 위한 세계기도일(6월25일) 선포와 6월19일 목회자대성회, 20일 세계선교·나라위한 기도회 위하여
4. 호산나 복지법인과 소외된 이들을 위한 사랑의 집터를 위하여

교회오시는 길



▶ 대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